

치위생과 학생의 구강암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신념

한지형[†] · 신명숙¹ · 황지민²

서울보건대학 치위생과
¹동남보건대학 치위생과
²한양여자대학 치위생과

Knowledge, Attitude and Beliefs About Oral Cancer of Dept. of Dental Hygiene Students

Ji-Hyoung Han[†], Myung-Suk Shin¹ and Ji-Min Hwang²

Dept. of Dental Hygiene, Seoul Health College, Soojung-Gu, Seongnam City, Kyungki-Do 461-713, Korea

¹Dept. of Dental Hygiene, Dong Nam Health College, Jangan-Gu, Suwon City, Kyungki-Do 440-714, Korea

²Dept. of Dental Hygiene, HanYang Women's College, Seongdong-Gu, Seoul City, 133-791,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knowledge of university students on oral cancer, their attitude toward it and their belief about it.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sophomores and juniors who majored in dental hygiene in Gyeonggi province.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As for knowledge on oral cancer, 63.3 percent acquired it from school, and just 32.2 percent were aware of how to prevent oral cancer. And they looked upon operation as the best way to treat oral cancer. (2) With regard to attitude toward oral cancer, 45.4 percent had interest in oral cancer. (3) In relation to oral cancer belief, poor oral environments were cited as the first cause of oral cancer, and 91.3 percent felt oral cancer was one of serious diseases. And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believed that it's possible to prevent and cure that disease, and regular oral examination was considered most important to prevent it. (4) As for correlation between dental health and oral cancer belief, they thought there was a weak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Those who were more concerned about oral health were more interested in oral cancer, and those respondents found oral cancer to be more grave. Their concern for oral health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ir interest in oral cancer and their perception of its gravity.

Key words Attitude, Beliefs, Knowledge, Oral cancer

서 론

현대 이르러 경제발전, 서구화된 식생활양식, 환경오염의 증가로 인해 암 발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평균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으나 암 발생연령은 점차로 낮아져 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한 해 동안의 사망원인은 암 신생물에 의한 사망률이 순환기계에 의한 사망률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¹⁾, 구강암의 경우 2002년 중앙암등록본부 보고에 의하면 전체 99,025건의 암환자 중 구강암 환자는 약 800건으로 전체 암의 약 1%에 조금 못 미치는 빈도로 인구 10만 명당 약 1.6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남자는 전체 구강암의 68%로 여자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이 발생하였으며, 연령별

로는 60대가 3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50대 이후부터 60, 70대에 구강암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였다²⁾. 발생부위별로는 혀에 발생하는 설암이 전체 구강암의 1/3 정도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구강암이 전체 암의 약 6%를 차지하며,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2:1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매년 약 30,000명 정도의 구강암 환자가 발생하고, 이중 8,000명 정도가 구강암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³⁾.

구강암은 입술, 입안의 점막 등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말한다. 구강암의 90%이상은 입안의 점막을 구성하는 편평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편평상피세포 암이다. 이외에 구강점막의 작은 침샘에서 발생하는 타액선암, 턱뼈나 안면부의 근육 등의 연조직에서 발생하는 육종, 구강점막의 입천장, 혀점막, 잇몸 등에서 발생하며, 검은 반점을 형성하는 악성흑색종, 드물게 림프종 등이 발생한다⁴⁾.

1996년 하버드 대학의 암예방연구센터에서는 미국에서 문제 시되는 암의 위험요인들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바 있는데,

[†]Corresponding author
H.P: 011-9714-2889
Fax: 031-740-7352
E-mail: nahochi-1@hanmail.net

흡연, 음주, 식이 등 일상적인 생활습관과 관련된 것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결론적으로 암은 예방 가능한 질병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구강암도 포함된다.

건강행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조원정 등³⁾은 건강행위를 하게하는 요인은 개인의 지각과 활용의 효율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따라 결정되며, 이 인식들은 사회·심리적 변인 및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지식과 신념은 미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구강질환에 관해서는 매우 관대하여 발생률이 높은 다른 기관의 악성 신생물에 비해 구강암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구강암에 대한 예방 교육과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구강암 조기검진 사업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이전에 구강암에 대한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차후 구강암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게 될 구강보건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암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신념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005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한 3개 대학의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1학년을 제외한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판단되는 2, 3학년을 무작위표본추출하였다.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배부된 500부의 설문지 중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477부(95.4%)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 변수의 정의 및 분석방법

연구방법에 사용된 설문지는 Ann⁴⁾이 연구한 설문자료를 참고로 우리나라 실정과 구강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하였으며, 예비조사를 거쳐 신뢰도를 검증하였다(신뢰계수 $\alpha = 0.5360$).

지식과 태도 및 신념에 관한 변수 분류 기준은 첫째, 지식의 항목에 있어서 앎과 모름의 뚜렷한 정답이 가능하거나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문항으로 하였으며 둘째, 태도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습관으로 나타나는 것 셋째, 신념에 있어서는 정답이 없고, 본인의 주관적인 답변을 포함한 평소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로 구성하였다.

구강암의 지식, 태도 및 신념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구강건강에 대해 조사하였다. 구강건강에 관한 항목에 있어서는 조사대상자가 치위생과 2, 3학년으로 이미 구강건강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식외의 구강건강에 대한 태도와 신념을 알아보았다. 즉, 태도에 있어서는 구강질환에 대한 경험여부와 이용하는 의료기관, 구강검진 횟수와 검진받는 기관, 구강건강에 있어서 해로운 행위, 흡연여부를 조사하였고, 신념에 있어서는 본인의 구강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구강건강에 대해 염려하는 정도를 알아보았다.

구강암에 관한 항목에 있어서 지식은 구강암을 알게 된 경위와 주위에 구강암이라 진단 받은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 예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치료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태도에 있어서는 구강암에 대한 관심정도를, 신념에 있어서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구강암의 원인이라고 추측되는 것, 구강암에 대한 심각한 정도와 예방의 가능성, 치료의 가능성,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위에 대해 질문하였다.

SPSS 11.5를 이용하여 구강암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에 관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조사하였고, 구강암의 지식과 태도 및 신념에 대한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 과

1. 구강건강에 대한 태도 및 신념

1) 구강건강에 대한 태도

구강건강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구강질환에 대한 경험여부를 조사하였다. 응답자중 41.0%가 구강질환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구강질환이 발생한 경우 이용하는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Table 1>과 같았다. 구강질환 발생 시에는 대부분 치과의원(80.5%)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치과병원(15.0%), 약국(3.4%) 순으로 이용실태를 나타냈다.

구강건강을 위한 구강검진 횟수와 구강검진을 받는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1.8%가 1년에 한 번씩 구강검진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12.3%가 1년에 2번 구강검진을 받는다고 답하였다<Table 2>. 또한 구강검진은 81.7%가 병·의원에서, 17.7%가 학교에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1. Medical Institution for dental treatment

Medical Institution	No(%)
Pharmacy	15(3.4)
Dental Clinic	360(80.5)
Dental Hospital	67(15.0)
General Hospital, University Hospital	3(0.7)
Public health center	2(0.4)
Total	447(100.0)

Table 2. Frequency of dental examination

Number	No(%)
Semiannually	55(12.3)
Annually	142(31.8)
Biennially	11(4.9)
Triennially	17(3.8)
Almost never	211(47.2)
Total	447(100.0)

Table 3. Dental examination institute

Institute	No(%)
School	79(17.7)
Chinic	365(81.7)
Hospital	2(0.4)
Public health center	1(0.2)
Total	447(100.0)

Table 4. Harmful behavior for dental health

Harmful behavior	No(%)
Oneside chewing	60(13.4)
Soft drink	116(26.0)
Smoking	12(2.7)
Bad prosthesis	3(0.7)
Cariogenic food	148(33.1)
Uncleanness dental hygiene	37(8.3)
Excessive chewing	56(12.5)
None	15(3.4)
Total	447(100.0)

Table 5. Smoking or Nonsmoking

Exprience	No(%)
Yes	39(8.7)
No	108(91.3)
Total	447(100.0)

Table 6. Belief about dental health

	Degree of oral health No(%)	Anxiety of oral health No(%)
Stongly agree	13(2.9)	180(40.3)
Moderaltely agree	179(40.0)	216(48.3)
Nether agree nor disagree	125(28.0)	36(8.1)
Moderaltery disagree	120(26.8)	13(2.9)
Strongly disagree	10(2.2)	2(0.4)
Total	447(100.0)	

구강건강의 행위에 있어서 가장 해롭다고 생각되는 행위를 묻는 질문에 우식성 식품의 섭취가 33.1%로 가장 많았으며, 청량음료 섭취(26.0%), 편측 저작(13.4%)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 또한 구강건강에 해로운 행위 항목으로 흡연에 대해 응답자의 경험 여부를 알아본 결과 91.3%가 흡연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Table 5>.

2) 구강건강에 대한 신념

구강건강에 대한 신념을 알아보기 위해 본인의 구강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과 구강에 대해 염려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Table 6>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40.0% 이상이 본인의 구강이 건강하다고 하였으며, 약 70%가 본인의 구강건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구강에 대해 염려하는 정도는 매우 그렇다가 40.3%, 그렇다가 48.3%로 구강에 대해 많이 염려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2. 구강암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신념

1) 구강암에 대한 지식

구강암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63.3%가 학교에서 알게 되었다고 답하였으며, 다음으로 20.4%가 대중매체라고 답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규수업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구강암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Table 7. Motive for knowing oral cancer

Motive for knowing	No(%)
School	283(63.3)
Parent	9(2.0)
Book	36(8.1)
Internet	26(5.8)
Friend	2(0.4)
Public press	91(20.4)
Total	447(100.0)

Table 8. Knowledge for oral cancer treatment method

Treatment method	No(%)
Surgical operation	289(64.7)
Chemistry treatment	18(0.4)
Rediotherapy	50(11.2)
Dietary treatment	15(3.4)
Ignorance	75(16.8)
Total	447(100.0)

Table 9. Interest of oral cancer

	No(%)
Stongly agree	27(6.0)
Moderaltely agree	176(39.4)
Nether agree nor disagree	129(28.9)
Moderaltery disagree	98(21.9)
Strongly disagree	17(3.8)
Total	447(100.0)

구강암에 대한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주위에 구강암의 진단을 받은 자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99.1%가 없다고 답해 구강암 진단자를 주위에서 거의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암의 예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인지 여부는 32.2%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구강암에 대해 알고 있는 치료법을 질문한 결과 수술로 치료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4.7%로 가장 많았으며, 모르겠다 16.8%, 방사선치료 11.2% 순으로 답하였다 <Table 8>.

2) 구강암에 대한 태도

구강암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구강암에 대한 평소 관심정도를 파악한 결과 <Table 9>와 같다. 관심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39.4%, 매우 관심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6.0%로 나타났다.

3) 구강암에 대한 신념

구강암에 대한 신념을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에게 구강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불량한 구강 환경이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흡연이 30.6%로 나타났다 <Table 10>.

구강암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60.0%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하였으며, 31.3%는 심각하다고 답하였다 <Table 11>.

Table 10. Cause of oral cancer

Cause of oral cancer	No(%)
Uncleaness dental environment	216(48.3)
Environmental pollution	10(2.2)
Excessive drinking	5(1.1)
Smoking	137(30.6)
Stress	25(5.6)
Bad eating habit	9(2.0)
Genetic factor	38(8.5)
Bad prosthesis	5(1.1)
Missing	2(0.4)
Total	447(100.0)

Table 11. Serious degree of oral cancer in my opinion

	No(%)
Stongly agree	268(60.0)
Moderaltely agree	140(31.3)
Nether agree nor disagree	34(7.6)
Moderaltery disagree	2(0.4)
Strongly disagree	2(0.4)
missing	1(0.2)
Total	447(100.0)

구강암이 예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94.9%가 가능하다고 답하였으며<Fig 1>, 치료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78.5%가 치료가 가능하다고 답하였다<Fig 2>.

구강암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행위에 있어서 50.3%가 정기적인 구강검진이 구강암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청결한 구강관리(30.6%), 금연(17.7%) 순으로 답하였다<Table 12>.

구강건강의 신념과 구강암에 대한 신념과의 상관성을 알아본 결과 구강이 건강하다고 생각할수록 구강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p < 0.05$). 구강건강의 염려와 구강암의 관심정도의 상관계수는 .209로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구강건강의 염려가 높을수록 구강암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구강암에 대해서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0.177), 구강암의 관심정도와 구강암의 심각한 정도에 있어서도 0.241의 약한 양의 상관관계로 구강암의 관심정도가 높을수록 구강암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p < 0.05$)<Table 13>.

Table 13. Correlation between belief of oral health and belief of oral cancer

	Degree of oral health	Anxiety of oral health	Degree of intrest in oral cancer	Seriousness of oral cancer
Degree of oral health	1.000			
Anxiety of oral health	-0.186*	1.000		
Degree of intrest in oral cancer	-0.006	0.209*	1.000	
Seriousness of oral cancer	0.040	0.177*	0.241*	1.000

* $p <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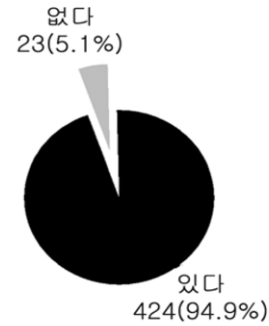


Fig 1. Preventive possibility of oral can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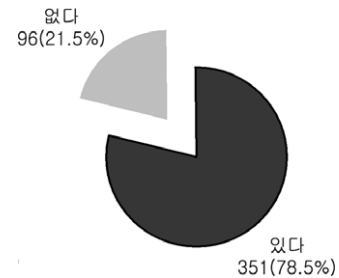


Fig 2. Treatable possibility of oral cancer.

Table 12. Behavior for oral cancer prevetion

Behavior	No(%)
Regular meal	4(0.9)
Periodical dental examination	225(50.3)
Nonsmoking	79(17.7)
Clean oral control	137(30.6)
Moderation in drink	2(0.4)
Total	447(100.0)

고찰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10만 명중 131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해마다 암 발생률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²⁾. Antunes의 연구에서도 65세 이상의 암발생 환자가 1980년 4.0%에서 1996년 5.9%로 증가했다⁵⁾. 그러나 아직도 암의 발생원인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개괄적인 인과관계에만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현재 암은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질환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구강암은 신체부위 중 가장 뚜렷한 노출부위로

발생 시 야기되는 안모의 파괴, 저작과 발음 등의 기능손상이 수술과 기능회복을 위한 수복을 통해서도 원상회복이 어려워 개인의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는 암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어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⁶⁾.

이에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강암에 대해 예방과 교육을 담당하게 될 예비 구강보건전문가인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암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신념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구강암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대부분 치위생과 학생들은 교과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구강암에 대해 알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주위 구강암 진단자의 유무에 관해서는 99.1%가 없다고 답해 아직 구강암의 빈도가 주위에서 흔히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구강암이 인구 10만 명당 약 1.6명으로 보고된 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라 할 수 있겠다. 구강암의 치료법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64.7%가 수술이라고 답해 암에 대한 치료법도 거의 양의학적인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구강암의 신념과 관련하여 구강암의 원인으로 불량한 구강환경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거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흡연이라고 답하였다. 이는 치위생과 학생들은 대부분의 구강질환이 불량한 구강환경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강암의 위험요인으로는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흡연, 음주, 바이러스, 방사선이나 자외선, 식습관과 영양결핍, 유전적 감수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 암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하여 구강암에 걸릴 위험성이 2배 이상 높다고 한다. 흡연 시 가장 먼저 접촉하게 되는 신체적 기관이 구강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흡연은 여러 역학연구를 통해 발암요인으로 암 발생간의 인과관계에 근거하여 위험요인들을 밝혀내고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와 미국 국립암협회에서 밝힌 암의 원인 중 흡연이 각각 15-30%, 30%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⁸⁾. 구강암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91.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구강암의 낮은 빈도로 인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소홀하게 여김으로써 암의 진행을 방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치명율이 높아지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구강암에 대해 예방이 가능하며, 치료 또한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이는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조기검진을 통해 예방과 조기발견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일차적인 관리가 암의 예방이라면 이차적으로는 조기 발견으로 완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구강암으로의 전환가능성이 높은 전암 병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한다면 구강암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갖고 있는 신념은 태도로 이어져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는 또한 구강암 예방에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같이 암은 개인이 갖고 있는 신념에 따라 행위로 나타나게 되며, 올바른 태도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기초적 역할을 하고 있다^{9,10)}.

구강암정보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구강암의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병기, 연령, 전신상태, 결손부위를 고려하여 결정하

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초기암인 경우는 수술과 방사선치료로 완치율이 비슷하지만, 수술을 하더라도 기능장애가 거의 없고, 수술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방사선치료보다는 수술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이며, 진행된 암의 경우는 수술과 방사선치료를 병용하여 치료하는 것이 완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 또한 항암화학요법은 현재까지 구강암의 일차적인 치료방법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부가적인 치료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구강암 예방법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연, 절주, 과일과 녹황색 채소, 비타민A, C, E의 섭취가 구강암의 발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잘 맞지 않는 틀니나 오래 사용하여 닳아지고 날카로워진 구강 내 보철물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손상을 받는 구강점막 부위에서 발생한 상처가 구강암으로 전환 될 가능성도 보고되고 있다²⁾. 구강암은 비교적 다른 장기에 생기는 악성종양과는 달리, 환자 자신이나 타인에 의해 시진과 촉진이 손쉬운 부위이다. 따라서 다른 부위의 질환보다 본인 스스로 조기발견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강질환을 소홀히 여겨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내원해 조치나 그 예후 또한 불량한 것으로 보인다.

구강암은 간단한 지식과 관심으로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으로 구강보건전문가로 활동하게 될 예비 치과위생사들로부터 구강암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신념을 조사함으로써, 구강암의 홍보와 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구강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 약

본 연구는 경기지역에 위치한 치위생과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암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신념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구강건강에 대한 태도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41.0%가 구강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었으며, 발생 시에는 대부분 치과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검진 또한 치과의원에서 1년에 1번씩 검진을 받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구강건강에 우식성 식품의 섭취가 가장 좋지 않다고 답하였다.
2. 구강건강에 대한 신념에 있어서 42.9%가 본인의 구강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88.6%는 본인의 구강에 대해 염려가 된다고 하였다.
3. 구강암에 대한 지식에서 63.3%가 학교에서 알게 되었으며, 32.2%만이 구강암에 대한 예방법을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구강암의 치료방법에서 수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구강암에 대한 태도에 있어 구강암의 관심도를 알아본 결과 45.4%가 관심이 있다고 답하였다.
5. 구강암의 신념에서는 불량한 구강환경을 구강암의 첫 번째 원인으로 꼽고 있으며, 91.3%가 구강암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대부분은 구강암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모두 가능하다고 답하였다. 구강암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구강검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6. 구강건강과 구강암에 대한 신념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약한 양의 상관관계로 구강에 대한 염려가 높을수록

구강암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구강암에 대해서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1
2. 국가암정보센터: www.cancer.go.kr
3. 조원정, 김모임: 청소년들의 건강상태와 건강행위 인지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4(2): 32-45, 1987.
4. Oakley A, Bendelow G: Health and cancer prevention: Knowledge and Beliefs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BMJ 310: 1029-1033, 1995.
5. Antunes JLF, Biazevic MGH, Araujo ME, Tomita NE, Chinellato LEM, Narvai PC: Trends and spatial distribution of oral cancer mortality in Sao Paulo, Brazil, 1980-1998. Oral Oncology 37: 345-350, 2001.
6. 임소정: 구강암의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환자-대조군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7. Myhre SL, Li VC, Guan JH: Cancer Knowledge and Perceptions Among Chinese Factory Workers: Implications for Cancer Control and Prevention. Cancer Detection and Prevention 20(3): 223-233, 1996.
8. Bouguot JE, Meckstroth RL: Oral cancer in a tobacco-chewing US population-no apparent increased incidence or mortality. Oral and Maxillofacial Pathology 86(6): 697-706, 1998.
9. Bendelow G: Knowledge and beliefs about health and cancer prevention : the views of young people. 1996.
10. Portnoy B, Christenson GM: Cancer Knowledge and Related Practices: Result from the National Adolescent Student Health Survey. Journal of School Health 59(5), 1989.
11. Scroggins TG, Bartley TK: Enhancing cancer control: Assessing cancer knowledge, attitudes, and beliefs in disadvantaged communities. Louisiana State Medical Society 151(4): 202-208, 1999.

(Received November 9, 2005; Accepted November 25, 2005)

